

2016년 12월 1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6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5(목)	담당부서	제품안전정책과
담당과장	임현진 과장(043-870-5410)	담당자	김태완 연구사(043-870-5412)

기술진보 시대의 리콜효율화 등 제품안전 관리방안 논의
-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제품안전혁신포럼 주최 -

- 국가기술표준원은 '16. 12. 16. (금)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「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」을 열었다.
 - 이번 포럼에는 기업, 소비자 단체, 학계, 협회 등의 **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200여명**이 참석하였고,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**제품안전 제도와 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**했다.
- 이번 '제품안전혁신포럼'에서는 오전에 '운영위원회'를 개최하고 오후에 '제도분과' 및 '기술분과'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제품안전세미나를 진행했다.
 - '운영위원회'에서는 '16년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포럼 운영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'했다.
 - 제품안전세미나 '제도분과' 세션에서는 제품안전 협업체계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해, '기술분과' 세션에서는 신제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.

- '14. 12월 '제품안전정책포럼'을 설립하여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사례에 비해, 금년에는 몇 가지 면에서 이전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.
 - 우선, 이전의 2차례 포럼이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, 이번에 개최되는 '제품안전혁신포럼'은 최근 제품안전 이슈에 대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**참여자**와 **논의범위를 확대 개편***한 데에 이전과 차이가 있다..
 - * 소비자단체, 법학계, 경영학계, 행정학계, 협단체,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참여(총 38명)
 - 또한, 이전의 포럼이 6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**제도/기술 분과 2개로 단순화해 집중적인 논의**를 추진하며,
 - 앞으로 **양 분과는 원칙적으로 월 1회** 개최할 예정이며, 내년 8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제품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- 이번 포럼은 최근 5년간 제품안전 관련 국내외 사례와 논의방향을 감안해 크게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.
 - ① **기술진보에 대응한 안전기준 마련**
 - 무인비행기(드론), 입체(3D) 프린팅, 사물인터넷 등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는 상황에서, 안전기준이 이러한 현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, 기술적 진보에 대응함에 있어 **사전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사후 시장감시의 상대적 효율성**에 대한 논의했다.
 - ② **소비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결함보상(리콜) 조치 할 수 있는 시장 감시의 효율성 제고방안**

- 해외 결함보상(리콜)사례, 해외 소비자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사고가 확대되기 이전에 **조기에 소비자 위험을 인지**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**국가간 리콜 정책의 협조**를 통해 **국제적 경합보상(리콜)조치**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

③ 기업의 자발적 리콜 유도 등 제품안전문화 확산방안

- 안전한 제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기업에 확산하도록 하는 반면,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해한 제품에 대한 결함보상(리콜) 조치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**제품안전 문화**를 확산하기 위한 **다양한 전략**을 논의

□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, “새롭게 개편된 ‘제품안전혁신포럼’에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리며, 향후 포럼이 제품정책개발과 안전제도 개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김태완 연구사(☎ 043-870-54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[붙임 1]

「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」 세부 프로그램

- 일시/장소 : 2016.12.16.(금)/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 (서울)
- 주요일정

운영위원회(알자스프로방스홀)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~10:10	10' 인사말씀	국표원장
10:10~10:40	30' 내년도 정책방향 및 분과별 중점 추진사항 -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 (10') - 제도분과 위원장 (10') - 기술분과 위원장 (10')	
10:40~11:40	60' < 운영위원 간담회 > - 제품안전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	운영위원 등 20명
11:40~11:50	10' 사진 촬영	
11:50~	오찬 및 친교 시간	

제품안전세미나(삼페인홀)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10	10' 개회사	제품안전협회장
14:10~15:30	80' < 제도분과 세션 > * 주제: 제품안전 협업체계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* 발표: 김태호 (서울대 교수) 등 2명 * 패널: 임헌진 (제품안전정책과장) 등 4명 * 질의응답	* 좌장 : 문은숙
15:30~15:40	10' Coffee Break	
15:40~17:00	80' < 기술분과 세션 > * 주제: 공산품 유해물질 규제 및 신제품 안전관리 기준 * 발표: 최은경 (생기연 수석연) 등 2명 * 패널: 송양희 (생활제품안전과장) 등 4명 * 질의응답	* 좌장 : 김재희
17:00	폐 회	

제품안전혁신포럼 개요

1. 추진배경

-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**제품안전 제도와 기준을 개선**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**각 계층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소통**하는 방향으로 개편

* 제품안전정책 발굴과 제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포럼을 설립('14.12월)

2. 주요 추진내용

- (명칭) '제품안전정책포럼'을 '**제품안전혁신포럼**'으로 변경
- (운영위원회) 포럼 조직 및 운영방향 심의, 운영규정 마련,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검토 등
- (분과위원회) **제품안전제도분과, 제품안전기술분과** 등 2개로 구성
 - * 운영간사 : 제품안전제도분과 - 제품안전협회, 제품안전기술분과 - 산업기술시험원
- (사무국)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운영사항 관장 및 분과활동을 지원

